



월간 RI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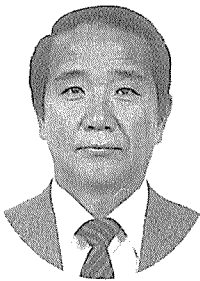
1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1997 창간호

1997년 1월호 창간호 발행인:고창순 편집: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주소:서울 강남구 대치동 960-12 전화:(02)566-1092(대) FAX:(02)566-1094 인쇄:성문사 비매품

창간사



고창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회장

우리 협회는 1985년 9월 30일 창립되어 어언 1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립 당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 기관이 439개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의 이용이 급격히 증대되어 그 이용 분야도 다양화되어 의료, 공업,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는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은 베크렐에 의해 방사능이 발견된지 100년이 되는 해로서 그 동안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이 인류에 가져다준 혜택은 다방면에 걸쳐 지대한 것이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19년 최초로 X선발생 장치를 도입한 이래 그 이용이 계속 증가되어 현재 이용기관수가 1176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기술로 건설된 30MW급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값싸고 양질의 방사성동위원소를 필요한 때에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은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는 방사선 피폭이라는 위험부담도 따르게 되므로 국민 보건상 불필요한 피폭이나 과피폭 위험이 합리적으로 방지되어야 하며 방사선 안전이 확보된 바탕 위에서만 그 효과도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협회에서 발간하게 되는 “RI뉴스”는 작년 협회에서 회원사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식지의 창간이 필요하다는 회원사의 여망과 새로운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화 사회에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동위원소 회보”로는 최선 정보를 회원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RI뉴스”에는 정부와 회원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국내 방사성 이용 기관의 소식과 정부 소식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정부와 회원사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를 도울 것이며, 월간 발행으로 회원사의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 증진과 안전성 확보에 힘쓰고자 학술, 의료 기술 및 산업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첫 걸음을 딛는 “RI뉴스”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증진에 뜻을 함께 하는 회원사 여러분께 좋은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되며 회원사 여러분도 올 한해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